

초등학생들의 언어태도 변화 연구*

Jin-Sook Choi
(Yongsan University)

Choi, Jin-Sook. 2011. A Study on Changes in Language Attitudes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Linguistic Research* 28(2), 431-450.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have been any changes in the degree of exposure to English and attitudes towards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The first and the second language attitude surveys were carried out in 1997 and 2004 respectively with primary school students in grade 4 to 6 aged from 10 to 13 years. Based on these two surveys, the third survey was conducted with 210 students in the same age of the same schools as done before, then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 third survey show that the degree of exposure to English has declined by a small portion, compared with the previous 2004 second survey (but it was still higher than the 1997 first survey). However it was noticeable that the students who studied English after school have shown an increased frequency in learning English: The more exposure to English, the more frequency to English learning. Also, their attitudes towards English speakers produced very different results from the 2004's: They showed a very positive attitude although they were in lower degree of exposure to English. Further, the third survey has confirmed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degree of English use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nor changes in their concept that English will give them benefits in the future. Over the past fourteen years, however, their original favorable attitudes towards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formed in the first survey have clearly declined in the second survey, and attitudes showed in the second survey did not change remarkably in the third surve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ir attitudes are likely to be neutral, and it seems difficult to expect a high English achievement and proficiency if this study has validity. (Yongsan University)

Key Words language attitudes, English, English speakers, primary school students

1. 연구목적

1997년,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교육의 변화가 생겼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영어과목이 처음 도입된 것이다. 정부가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특별활동으로 도입하겠다는 안은 1970년대부터 나왔으나, 그 당시 국민들은 초등학교에서

* 본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 영어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그 안은 철회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화’라는 큰 물결과 함께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다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4학년 학생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 영어특별활동은 EBS방송과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학인, 1997).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세계화’는 더욱 강조되었고,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1년 시행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60.9%가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1992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물론 이 안은 많은 논란과 토론을 가져왔다. 많은 토론에서 10살 이전의 어린나이에 배우는 영어는 유창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발음을 습득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국제어인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Choi, 2002).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영어 과목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모국어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모국어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사대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Choi, 2002). 즉, 영어 학습은 단순히 영어사용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인식 및 정신적 과정의 복잡한 사회활동이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는 문화적 필수요소이고 생각, 감정 등은 언어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모국어기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영어 학습으로 인해 모국어기반 사고와 감정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렇듯 수많은 토론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상에게 일주일에 2시간, 일 년에 최소한 68시간을 영어교육을 한다는 골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 과목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과 더불어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며 더욱 더 영어능력을 중시해왔고 따라서 영어학습도 강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와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몰입교육, 대학의 영어강의 등을 중점화하면서 그 가속도를 더 해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의 영어 열풍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또한 영어능력을 가지는 대가로 지켜보아야만 한다(최진숙, 2010).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영어학습의 주체자이고 영어 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초등학생들은 영어 학습을 얼마나 하고 영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한국에 와있는 영어 사용 외국인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한 영어를 접하면서 영어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1997년 처음으로 Choi(2002)에 의해 언어태도 연구가 시작

되었다. 1997년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정확히 7년이 지난 2004년에 두 번째 조사가 Choi(2005)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7년 후인 2011년에 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처음 초등학교에 영어과목이 도입된 이후 지난 14년 동안 그들의 언어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비교 분석하여 변화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나아가 그들의 언어태도 변화를 통해 영어 학습현황 및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영어로의 언어이동이 있는지 조명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어 학업성취도 및 영어능숙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나아가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들과 영어교육정책의 효율성까지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다.

2. 언어학습과 언어태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거나 새로운 언어에 노출되면 그 언어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형성된다. 어떤 사물이나 언어에 직접적인 접촉 경험은 인간의 생각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최진숙, 2010), 특히 특정언어를 배우고 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좋아진다고 한다(Lambert, 1987). 이는 새로운 언어와 접촉함으로써 언어학습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언어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적 태도는 목표언어나 목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지나친 민족주의에 비롯”(이완기, 2009, p.235)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외국어를 배우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학습자의 태도와 느낌들은 그 언어로의 노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영어로의 노출도와 영어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Choi(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국어의 능력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대학생의 경우, 영어로의 노출도에 따라 영어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달랐다. 즉, 영어로의 노출이 많은 학생일수록 영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영어 학습에도 적극성을 보여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이렇게 높은 학업성취도는 영어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lement(1979) 또한 목표언어와 목표문화에 노출 시킨 후,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를 연구했다. 연구대상자들을 불어 몰입교육과 거주(residence)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불어 및 불어사용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몰입 및 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불어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한 언어로의 노출이 학습자에게 그 언어에 대한 호감을 줄 수 있

다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 그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 두 요인들(factors)은 언어태도 연구에 같이 포함되어 왔다(Fasold, 1984; Lambert, 1987).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한 언어와 그 특정한 언어 사용자에 대한 두 태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심리학적인 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Appel과 Muysken, 1987). 예를 들어, Mgbo-Elue(1988)는 나이지리아에서 Yorubas와 Ibos에 대한 언어태도를 조사했는데, 그 언어에 대한 호감이 그 그룹에 대한 좋은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Loulidi(1990)의 연구 또한 특정한 언어에 유창해지면 그 언어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factors)은 물론 그 언어가 속한 그 나라의 문화에도 호감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만약 이런 연구결과들이 신뢰성을 가진다면, 처음 한국의 초등학교에 영어가 도입 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분명 영어에 대해 호감을 가졌고 영어 사용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언어 및 그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특정한 언어의 태도는 그 언어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언어태도가 좋으면 그 언어의 능숙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Choi(2002)의 1997년 첫 번째 언어태도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직접 면접을 통해 초등학교생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한 후, 그 능숙도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영어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생들의 영어에 대한 호감도는 영어능숙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영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영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왔고(피어슨 상관계수 $r = 0.445^1$), 영어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영어능숙도가 높은 그룹에 있었다($r = 0.212$).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Choi(2001)의 또 다른 연구도 영어에 대한 좋은 태도는 영어의 유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emblay, Goldberg와 Gardner(1995) 또한 히브리어를 배우는 캐나다학생들의 언어 태도를 연구한 결과, 언어태도와 언어유창성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히브리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습자들이 히브리어에 훨씬 더 유창했고 히브리어를 배우고자하는 의욕(desire)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Knuver와 Brandsma(1993)는 212명의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어의 학업성취도와 언어태도와의 관계를 2년 연속으로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네덜란드어 학습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언어태도를 알게 되면 언어학습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고, 따라서

¹ 상관계수가 0.05 이상이면 유의미.

언어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언어 학업성취도와 언어 유창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이처럼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학업성취도에, 특히 외국어 학습효과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목표외국어 접하는 기회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학습의 동기도 낮기 때문”(이완기, 2009, p.234)이며, 따라서 노출도가 낮고 학습동기가 낮아 영어에 몰입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학업성취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3. 언어태도 변화

이제 우리는 언어에 노출되어 학습하게 되면 그 특정한 언어에 대해 호감이 생긴다는 것과 그 호감은 언어학습의 성공여부 및 언어 능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언어태도를 연구한다면 현재 배우고 있는 영어에 대한 성취도 여부와 능숙도(proficiency)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한 언어로의 접촉으로 형성된 특정한 태도가 언어로의 노출이 장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처음에 형성된 태도가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Gardner(1985)는 그의 언어태도 연구에서 아주 높은 호감도는 단기어학연수 같이 특정한 언어에 단기간 높은 노출을 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반대로 정규 프로그램으로 보다 긴 시간동안 특정한 언어에 노출되어 있던 학습자들에게서는, 학습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처음에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는 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자 적극적인 태도는 중립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발견 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Gardner(1985)는 단기 언어접촉은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언어 접촉은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 때문에 처음에 형성된 적극적인 태도가 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즉,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언어로의 노출이 아니라, 학습자가 언어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하였느냐, 즉 ‘총체적경험’(Gardner, 1985)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언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게 하는 변수로는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Stagich(199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Stagich(1998)에 따르면, 영어를 배우는 일본학생들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영어문화의 이해였다. 따라서 그는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목표언어의 문화적 활동에 참여시키고 문화가 포함된 교재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Mantle-Bromley(1995)의 연구인데, 그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수

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목표언어의 문화를 포함시킨 9주 외국어 프로그램을 마친 후, 그의 연구대상인 중학생들의 불어와 스페인어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목표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보여주었음은 물론 목표언어와의 높은 융화력을 보여주었다. 문화관련 수업인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단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학생들의 의기소침함과 편견을 없애주고 목표 언어의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언어교사의 역할이었다고 Mantle-Bromley(1995)는 설명했다.

언어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Reagan과 Osborn(1998)의 연구에서도 다루어졌다. 이들은 외국어 교수법이 왜 성공하기 어려운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언어학습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결과, 언어학습 현장인 교실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목표언어로의 노출 또한 부족했으며, 교과과정에 목표언어의 문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교사가 학습내용과 문화내용을 힘과 권위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학습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업의 질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목표언어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하려면 수업의 질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박상옥(2009) 또한 언어학습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수방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언어에 대한 태도는 프로그램, 교사, 교수 방법, 학습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태도가 많은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언어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일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언어정책과 언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수업의 질과 교과과정의 문제, 교사들의 교수방법 및 학습현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다. Boyle(1997)은 홍콩 중고등학교에 영어교육이 정식교과 과정에 도입 된 후,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조사해 왔는데, 1970년대의 영어에 대한 태도조사들과 1990년대의 태도조사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도입 초기에 나타났던 영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 오히려 영어는 비즈니스를 보다 잘하기 위한 도구로써 그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언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두드러진 태도 변화는 과거에는 영어가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조사결과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 정체성인식은 영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최진숙, 2009), 정체성인식이 약화되었다면 오히려 유창성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Boyle(1997)은 홍콩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태도를 통해 홍콩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들과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Choi(2005) 또한 1997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가 도입된 후, 초

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7년 후인 2004년에 그들의 태도를 다시 조사하였다. Choi(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과 후 영어로의 노출도는 7년 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으나, 영어와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나아가 영어에 대한 흥미도 급격히 떨어져 영어 학습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출도는 증가했으나 영어 및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급격히 낮아짐으로써 영어교육의 비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인 영향, 즉 영어열풍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영어학습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언어태도 변화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 언어태도변화 연구는 사회언어학 및 영어교육관련 연구자들이 보다 심화되고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꾸준히 접근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연구자는 믿고 있다.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자

이 연구에 참여해준 연구대상자들은 현재 학교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학습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210명의 초등학생들이다. 이들의 나이는 모두 10살에서 13살 사이에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처음 영어과목이 도입된 이후 지난 14년 동안 그들의 언어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의 타당성(validity)을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전의 두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들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어로의 노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경제 배경(최진숙, 2002)²이 유사해야하므로 앞의 두 연구(1차: 185명, 2차: 200명)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이 다니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두 학교를 다시 선택했다. 그리고 이전의 두 언어태도조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와 똑 같은 학년, 똑 같은 나이에 있는 학생들을 다시 선정했다. 본 연구와 이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처럼 모든 것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14년 전의 연구대상자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영어로의 노출양이 다를 수 있다. 즉, 첫 번째 조사에서는 영어를 학교에서 처음 접한 연구대상자가 많았다고 할 수 있

2 강남구와 강북구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영어로의 노출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지역별 학생들의 노출도가 확연히 다름이 확인되었다.

나, 두 번째 조사를 거쳐 본 연구인 세 번째 조사로 오면서 영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연구대상자들은 학교 입학 전 또는 훨씬 더 이른 나이에(예를 들어 돌 전후부터) 영어를 접했을 확률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요청을 해서 연구자가 2011년 2월에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만나볼 수 있었다. 설문지조사가 교실에서 진행되기 전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조사결과의 용도를 설명했고, 개인의 정보는 철저한 비밀로 지켜질 것을 약속한 후 참여자들에게 설문지가 나누어졌다. 완성된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비교 분석 자료로서 연구자에 의해 거두어졌다.

4.2 설문지

이 연구의 도구는 언어태도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1)영어로의 노출도, 2)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태도, 3)영어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인 영어로의 노출과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방과 후 영어를 별도로 배우고 있는지; 2)만약 배우고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영어를 배우는지; 3)하루에 몇 시간 씩 배우는지; 4)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전에 미리 영어를 배웠는지; 5)얼마나 자주 영어사용 외국인과 접촉하는지; 6)얼마나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지 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 영어사용 외국인(국적에 관계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전부를 포함)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7)영어사용 외국인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는지; 8)거리에서 영어사용 외국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8)영어공부 하는 것이 즐거운지; 9)가능하면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지; 10)한국어를 사용할 때 영어를 얼마나 많이 섞어 쓰는지; 11)영어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12)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지; 13)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등이다.

처음 설문지 제작과정에서 많은 선행연구(예, Tremblay, Goldberg와 Gardner, 1995; Gardner, 1985; Lambert, 1987)와 사회학 연구방법들(De Vaus, 1995)을 참고하였다.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번의 시험조사(pilot)가 선행되었다. 30명으로 진행된 시험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뜻으로 오해하기 쉽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거나, 또는 중복된 질문들은 제작과정에서 삭제되었거나 수정되었다. 설문지의 응답자가 초등학교생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설문지 문항수와 질문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히, 응답은 세 가지, 즉, '1.그렇다, 2.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로 제작되었는

데, 이는 복잡한 응답체계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시험조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고 삭제 및 수정된 된 결과이다. 이처럼 1, 2차 사전 예비설문지조사를 거쳐 두 조사의 응답들을 분석했고 응답에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 한 후 1997년에 최종적인 실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4년과 2011년 조사를 거치면서 표현법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나 질문의 기본적인 틀은 수정되지 않았다. 설문지 통계 및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PC+(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

5. 결과 및 논의

5.1 영어로의 노출도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방과 후 영어 학습과 관련해 분석하였다(그림 1). “방과 후 영어를 공부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은, 1997년 조사에서 68.1%, 2004년 조사에서 89%, 이번 2011년 조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즉, 첫 번째 조사에 비해 두 번째 조사에는 노출도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21% 증가), 두 번째 조사에 비해 세 번째 조사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1% 감소). 최근 한국사회의 영어열풍과 함께 노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04년 두 번째 조사에서 정점을 찍고 오히려 다시 노출도가 감소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사회경제의 위축(통계청, 2010)의 여파로 사교육비를 필요로 하는 영어학습의 기회가 줄어들었거나, 방과 후 자연스런 영어로의 노출(예, 영어영화를 보는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어 학습으로 인식하지 않아 영어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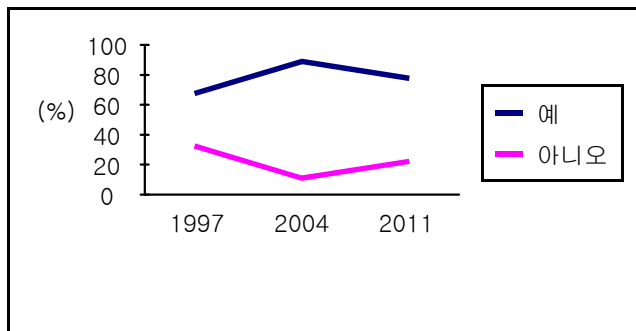


그림 1. 방과 후 영어 학습 여부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을 볼 것). 65%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다음이 ‘부모님께’가 12%, ‘학습지로 혼자’가 9%,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보고’ 7%, ‘그룹으로 과외지도’가 4% 순이었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결과들이 1997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가 처음 포함되었던 해와 비교해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조사에서는 32.7%만이 학원에서 공부했고, 18%가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보고 학습했으며, 17.3%가 그룹으로 과외지도를 받았고, 10.7%가 개인과외였으며, 10%가 학습지로 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7%가 부모님께 영어를 배운다고 답했었다.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학원에서의 영어 수업이 급격히 늘어났고, 선생님과 둘이서 공부하는 개인과외가 급격히 줄었으며, 마지막 순위에 있던 ‘부모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던 학생들의 수가 두 번째 상위에 놓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비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과외지도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부모님께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영어 학습 방법

	학원 에서	그룹 과외	선생님과 둘이서	비디오나 TV를 보고	부모님께	학습지로 혼자	기타
1997	32.7%	17.3%	10.7%	18%	8.7%	10%	3.3%
2011	65%	4%	0%	7%	12%	9%	3%

(2004년에는 이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음)

나아가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과 후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 수 자체는 두 번째 조사와 비교해 줄었지만(1997: 68.1%, 2004: 89%, 2011: 78%), 일단 방과 후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들 사이의 영어 학습 빈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방과 후 영어 학습을 며칠이나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씩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그림 2를 볼 것). 1997년 조사에서는 17.3%가 ‘매일’, ‘3-5일’이 20.5%, 그리고 ‘1-2일’이 28.1%였다. 그리고 31.9%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다고 답했고, 21.1%가 하루에 ‘30분’, 8.1%가 하루에 ‘두 시간이상’ 공부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4년 조사에서는 23%가 ‘매일’ 공부한다고 답했고, 46%가 ‘3-5일’, 18%가 ‘1-2일’로 나타났다. ‘3-5일’이 46%로 늘어난 것은 1997년의 ‘1-2일’군이 ‘3-5일’군으로 옮겨짐으로써 노출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매일’군이 28%로 늘어남으로써 1997년 조사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5일’군도 55%로(1997년:

20.5%, 2004년: 46%)대폭 늘어나 ‘1-2일’군의 학생들이 더 높은 빈도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방과 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두 번째 조사에 비해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강도는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방과 후 영어로의 노출도가 높은 학생들과 반대로 방과 후 노출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영어지식 차이는 더욱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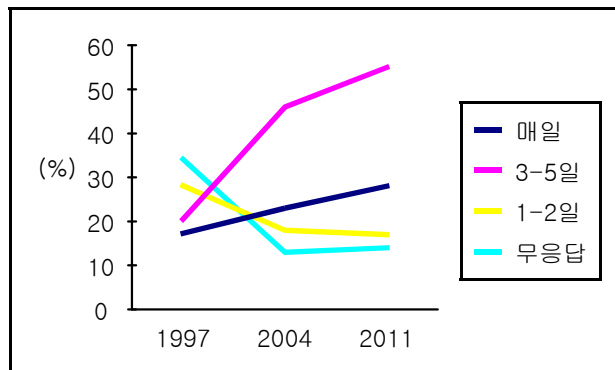


그림 2. 방과 후 주당 영어 학습 빈도

다음의 그림 3은 연구대상자들의 해외여행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사실 조기영어유학은 많은 사회 문제들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최진숙, 2009),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1997년 이후 조기영어유학자 수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급기야는 1997년에 만 명당 0.6명이었던 것이 2004년 만 명당 15.2 명, 2008년도에는 34.1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박영석, 2011). 이처럼 조기영어유학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글로벌화를 외치는 정부와 영어가 자녀들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모들의 인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해외여행’이 반드시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로의 여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조기영어유학’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사회의 ‘영어열풍’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경험을 한 학생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11년도 조사에서는 ‘한번’ 가보았다고 답한 학생이 12%, ‘여러 번’ 가보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14%, ‘살아본 적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3%로 해외경험학생은 모두 29%였고, 이는 2004조사의 31%에 비해 2%가 감소한 것이고, 1997년 조사의 21.3%(‘한번’: 8.7%, ‘여러 번’: 7.7%, ‘해외에서 살아 본적 있다’: 4.9%),에 비해서는 7.7% 증가한 것이다. 결국, 지난 14년 동안 해외여행을

경험한 연구대상자수는 21.3%에서 29%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中间的 2004년 2차 조사에서 가장 상승한 수치(31%)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격히 늘어난 위의 조기영어유학자수에 비교하면 본 연구의 해외경험자수는 지난 14년 동안 늘어났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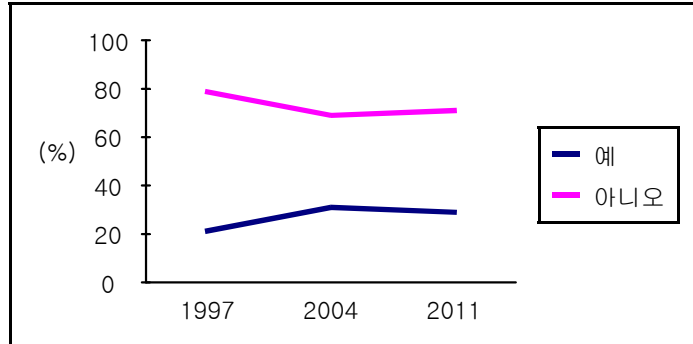


그림 3. 해외경험

5.2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태도

한국은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고, 단일민족으로써 언어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동남아에서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수민족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단일민족인 한국에 처음 영어교육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으며,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학교 외에 정식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1883년에 세워진 ‘동문학’을 최초의 영어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김학인, 1997). 이처럼 영어교육과 함께 접하게 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들 사이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다(예, Appel과 Muysken, 1987; Gardner, 1985; Loulidi, 1990; Mgbo-Elue, 1988).

그렇다면 1997년부터 영어 과목을 정식과목으로 접하게 된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그림 4를 볼 것). 그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에서 영어사용 외국인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1997년 처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51.4%가

그들을 보면 ‘아무 느낌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직 46.4%만이 ‘느낌이 좋다’라고 답했고, 2.2%가 ‘느낌이 나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2004년 조사에서 이 ‘느낌이 없다’의 수치는 한층 더 올라가 66%까지 기록했다. 그리고 ‘느낌이 좋다’는 31%로 크게 떨어지면서 ‘느낌이 좋다’에 있던 집단이 ‘아무느낌이 없다’군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11년 조사에서 아주 미미하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60%가 여전히 ‘아무느낌이 없다’라고 대답했으며 ‘느낌이 좋다’는 34%, ‘느낌이 나쁘다’는 6%로 2004년 조사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느낌이 나쁘다’군이 비록 적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높아져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1997: 2.2%, 2004: 3%, 2011: 6%).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노출도가 높아지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게 되고 따라서 그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도 좋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7년 영어교육 도입 이후 14년 동안 꾸준히 영어로 노출이 되었지만(학교정규학습 및 사교육), 2004년 많은 학생들이 ‘아무느낌이 없다’라고 보고한 이후 2011년 본 연구에서 아직도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싫은 느낌은 더 강화되고 있어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또 다른 추정은 오랫동안 영어사용 외국인을 접하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호기심 또는 신기함이 사라져 이제는 한국인을 보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아무 느낌이 없다’고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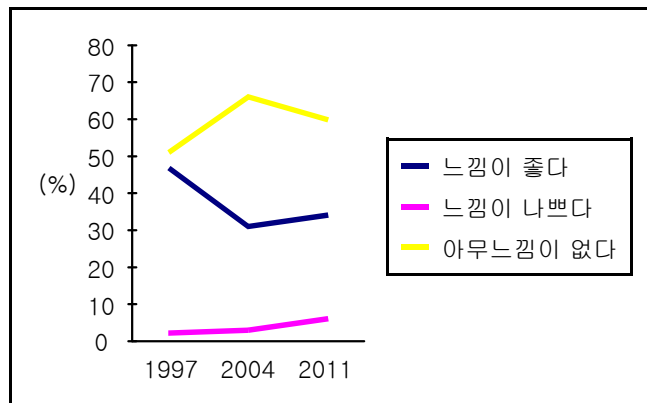


그림 4.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느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행동변화이다. 아래 그림 5를 보자.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2011년 본 조사의 결과는 ‘헬로우’라고 인사 한다’가 44%, ‘그냥 손을 흔든다’가 14%, ‘다른 길로 간다’가

3%, ‘그들을 못 본 척 한다’가 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에 시행된 1997년 조사에서는 외국인을 만나면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거나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수치가 무려 68.4%였는데, 2004년에는 49%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번 2011년 조사에서는 58%로 다시 높아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출도가 가장 높았던 두 번째 조사에서 가장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노출도가 가장 낮았던 첫 번째 조사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노출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적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학교에서 영어 학습을 접한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 때문에 외국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알 수 없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 즉, 다른 길로 간다든지 외국인을 못 본 척 하는 연구대상자들은 1997년 11.7%에서 2004년은 35%, 그리고 2011년도 본 연구에서는 24%로, 두 번째 조사보다는 11% 낮아졌지만, 첫 번째 조사보다는 12.3%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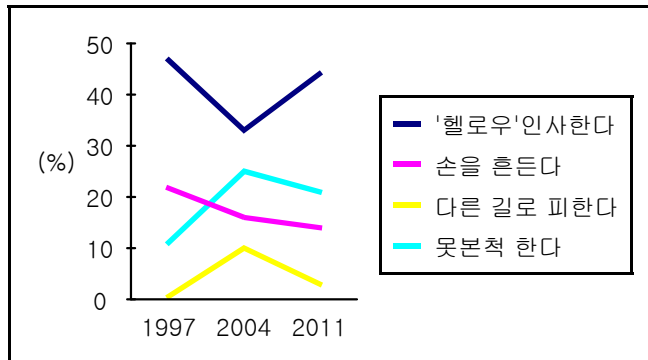


그림 5.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하는 행동

5.3 영어에 대한 태도

다음 단계는 학교에서의 영어 학습으로 인해 형성된 영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보았다(그림 6).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1997년에는 67.2%가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2004년에는 46%만이 ‘그렇다’라고 답해 영어 학습에 대한 호감도가 7년이 지난 후 확연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감도는 본 2011년도 조사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참여자가 정확히 절반인 50%로 나타나 이전의 2004연구에서의 결과(46%)보다는 아주약간(4%) 상승했지만, 이는 1997년에 조사된 처음의 높은 호감도(67.2%)에서 감소된 이후 영어 학

습에 대한 태도는 중립상태(neutrality)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기 언어접촉은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언어 접촉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상태로 가기 쉽다는 Gardner(1985)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1997년에는 31%에서 2004에는 8%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본 연구인 2011년에는 24%로 상승했는데, 이는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간으로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모르겠다’인 상태로 갔다가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세 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모르겠다’군의 수치를 보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진다. ‘모르겠다’군의 수치는 1.8%-46%-26%로 크게 널뛰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처음엔 영어 학습에 대해 좋고 싫음이 명확했는데, 7년이 지난 후에는 판단이 어려워졌고, 또 다른 7년이 지난 후에는 ‘모르겠다’라고 자신에 태도에 대해 불분명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군으로 옮겨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본 조사에서 ‘모르겠다’군이 낮아진 대신에 ‘그렇지 않다’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Choi(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출도가 높으면 호감도도 비례하여 올라간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노출도와 호감도의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번 떨어진 호감도는 다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비호감도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훨씬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영어 학습은 많은 변수(선생, 프로그램, 학습 환경 등)가 있어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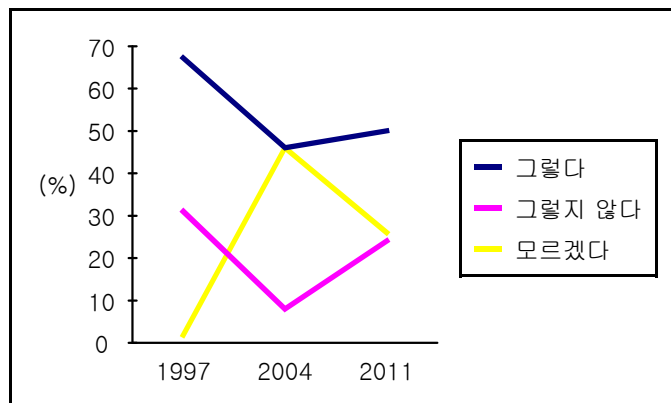


그림 6.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되도록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지 알아보자. 아래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도에는 51.9%가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2004년도에는 28%만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해 두 조사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2004년 두 번째 조사에서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연구대상자 중 50%가 노력한다고 대답하여 다시 절반의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영어 학습을 접할 때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의욕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과 의욕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언어접촉으로 인한 호기심 때문이라기보다 영어가 자신들의 미래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즉, 영어는 유용성이 있고 가치 있는 언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도구적’(instrumental)태도로(Baker, 1988) 보여 진다. 사실 한국의 언어 환경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실제로 학교 수업 및 영어학원등 사교육이 행하여지고 있는 시간 및 장소를 제외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드물고, 따라서 모국어를 쓰는 언어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학습 효과와 효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연구대상자들이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그만큼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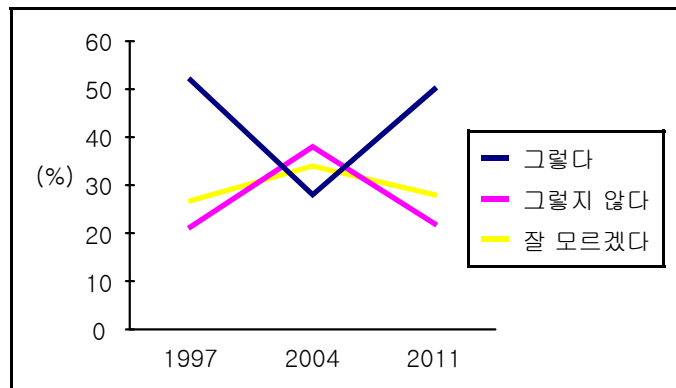


그림 7. 되도록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합니까?

다음은 연구대상자들이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1997년에는 67.6%가 모국어를 사용할 때 영어를 ‘약간’ 섞어서 사용한다고 대답했고, 반면에 5.5%가 ‘매우 많이’ 섞어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26.9%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4년 조사에서도 역시 ‘약간’ 사용하는 참여자가 67%, ‘매우 많이’가 6%,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참여자가 26%로 나타나, 7년이 지났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7년이 지난 본 2011년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약간’ 사용하는 학생이 72%로 오히려 이전 조사에서보다 5% 상승했다. 또한 ‘매우 많이’ 사용하는 학생도 8%로 앞의 두 연구결과와 비교해 늘어났다(1997년:5.5%, 2004년:6%).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20%로, ‘약간’ 및 ‘아주 많이’군으로 이전한 만큼 수치가 낮아졌다. 결국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지 14년 만에 아주 소폭으로 영어로의 언어이동(language shift)은 진행되었으나, 1997년 도입초기에 영어로의 언어이동으로 모국어 사용이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언어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주장들(예, 김민수, 1998)은 본 논문의 결과가 신뢰성을 가지는 한, 아직까지는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 14년 동안에 시행된 영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참여자들의 영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 모두에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였듯이(1997: 92.4%, 2004년: 92%), 세 번째 본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치(90%)를 보였다. 물론 앞의 두 조사에 비교해 소폭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영어를 배워두면 커서 본인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고 영어가 장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영어의 유용성 인식조사와 함께, ‘만약 학교에서 더 이상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따로 영어를 배울 것이다’가 61.3%(1997), 63%(2004), 60%(2011)로 나타났으며,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것이다’는 6.6%(1997), 10%(2004), 10%(2011)로, ‘지금 결정할 수 없다’가 32.1%(1997), 27%(2004), 30%(2011)로 조사되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계속해서 영어를 배울 것’이라는 의지는 본 2011년 조사에서 미소하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영어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비록 영어 학습을 즐겁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한,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를 배울 것으로 보여 진다.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평균 10%를 밑돌아 위의 유용성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본 논문은 연구대상자들의 영어로의 노출도,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태도, 그

리고 영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지난 1997년과 2004년에 조사된 연구결과들과 비교 분석한 후, 그들의 언어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언어태도조사인 본 논문의 연구결과, 2004년 두 번째 조사에서 영어로의 노출도는 정점을 찍은 후, 본 2011년 조사에서 다시 감소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방과 후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빈도는 더욱더 늘어나 영어능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나아가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긍정적인 좋은 느낌은 2004년에 급격히 줄어들은 후, 2011년에도 여전히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조금씩 늘었거나, 아직도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 조사에서 나타난 그들의 태도변화를 보면 노출도가 낮을수록 외국인에게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처음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호감도가 형성되었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 크게 낮아졌고, 본 2011년 연구조사에서는 낮아졌던 호감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중립상태로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단기 언어접촉은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언어 접촉은 중립상태로 가기 쉽다는 Gardner(1985)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영어가 정식과목으로 도입 된지 14년이 지났지만 모국어에 영어를 ‘약간’ 섞어서 사용하는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뿐 언어이동(language shift)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신 여전히 영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용성 인식은 세 차례 연구에서 꾸준히 절반이상의 연구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별도로 공부하겠다는 의지력과 맞물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세 번의 언어태도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번째 연구결과는 첫 번째 연구결과와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으나, 세 번째 연구결과는 이전의 두 번째 연구결과에 비교해 소폭변화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두 번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언어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별한 느낌이 없는 영어사용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중립으로 바뀐 영어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능하지만, 처음 영어가 도입되었을 때 가진 호기심 및 신기함은 사라졌고 이제 영어의 유용성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14년이 지났지만 영어사용 비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어 학습의 비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교실에서의 영어 학습에는 많은 변수(선생, 교실환경, 프로그램 등)가 있을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우선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줄 수 있는 문화수업을 늘리고(Mantle-Bromley, 1995), 언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Reagan과 Osborn, 1998) 교사들이 새로운 학습법을 개

발할 수 있는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실 환경을 점검하고 영어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박상옥, 2009) 어린 학생들이 영어를 강요당하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국어에 뛰어난 학생이 영어능력도 뛰어나다는 연구결과(최진숙, 2008)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모국어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영어 학습이 더 즐거워지고 따라서 호감도가 상승해 영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형성시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모국어 학습을 강화하는 것도 영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일 수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의 결과들은 영어로 인해 언어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논란(Choi, 2002)들을 조금은 가라앉힐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언어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언어, 사회, 교육,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는 믿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수. 1998. “초등학교 영어에서 장치해야할 필수조건”.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민족어의 미래』. 서울: 고려대학교.
- 김학인.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 박상옥. 2009. 『영어교사를 위한 영어교수법』. 서울: 신아사.
- 박영석. 2011, 2월 9일. “조기유학생 사상최대 감소”. 『연합뉴스』 1.
- 이완기. 2009.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최진숙. 2010. “영어권 국가에서의 조기학습 경험과 현재”. 『언어연구』 27(2): 333-355.
- 최진숙. 2009. “대학생들의 영어능력과 언어정체성인식과의 관계”. 『언어연구』 26(2): 67-83.
- 최진숙. 2008.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관계-영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16(2): 27-46.
- 통계청(Korean Census). 2010. *통계연감*. 서울: 한국통계청
- Appel, R. & Muysken, P. 1987.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London: Edward Arnold.
- Boyle, J. 1997. English in Hong Kong. *English Today* 13(3), pp.3-6.
- Baker, C. 1988. *Key issues in bilingualism and bilingual educ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hoi, J. S. 2005. Changing attitudes to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English Language Teaching* 17(2): 1-24.
- Choi, J. S. 2002. *Language Attitud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acquarie University, Sydney.
- Choi, J. S. 2001. The effect of the amount of positive contact with English on desire to

- learn English and English proficiency. *Foreign Language Research* 20: 125-141.
- Clement, R. 1979. Immersion and residence programs: Their effects on attitude and anxiety. *Interchange* 9: 52-58.
- De Vaus. D. A. 1995. *Survey in Social Research*. North Sydney: Allen & Unwin.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Knuver, A. W. M. & Brandsma, H. P. 1993. Cognitive and affective outcome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4: 189-204.
- Lambert, W. E. 1987. The effect of bilingualism and bicultural experience on childhood bilingualism. In Homel, Palij & Aaronson (Eds.), *Childhood Bilingualism* (pp.35-86). London: Lawrence.
- Loulidi, R. 1990. Attitudes towards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Protestant and Catholic schools in Northern Ireland.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3(3): 227-238.
- Mantle-Bromley, C. 1995. Positive attitudes and realistic beliefs: Links to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79(3): 372-386.
- Mgbo-Elue, C. N. 1988. Social psychological and linguistic impediments to the acquisition of a second Nigerian language among Yoruba and Ibo. In W.B. Gudykunst (Ed.),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pp.86-105). Clevendon: Multilingual Matters.
- Reagan, T. & Osborn, T. A. 1998. Power, authority, and domin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al Foundations* 12(2): Spring, pp.45-62.
- Stagich, T. 1998. Cultural context and meanin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General Linguistics* 36(1-2): Spring-Summer, pp.71-79.
- Tremblay, P.F., Goldberg, M. P. & Gardner, R. C. 1995. Trait and state mo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Hebrew vocabula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56-370.

최진숙

(626-790)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산150

영산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E-mail: jinachoi1@naver.com

접수일자: 2011. 07. 12

수정일자: 2011. 08. 10

게재일자: 2011. 08. 19